

시대 사랑과 생명의 제단,  
엘리야기도와 새벽의 중요성.

작성일 : 2010. 05. 06. (목)

작성자 : 정은별

[새벽기도 중,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사랑을 구할 때 ‘기도로 사랑의 제단, 생명의 제단을 쌓으라.’ 하셔서 전도에 관한 말씀인가 하여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제단이 보였고 그 제단 위에는 약간 둥근 모양으로 각지지 않은 사각형 형태의 흰 돌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높이는 사람의 허리 정도나 약간 그보다 높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흰 돌로 이루어진 단 위에는 마른 나무 가지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로 사랑의 제단, 생명의 제단을 쌓으라.  
내가 지금 본 제단은 천국에 내가 기념으로 남겨놓은  
구약 시대 제물을 바치던 제단의 모습이니라.  
이 시대는 신부의 역사이나  
구약의 때에 제사장들이 나에게 정성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여  
가장 깨끗하고도 깨끗한  
가장 좋은 것만을 나에게 주던  
시대의 제단을 기념으로 남겨 놓은 것이니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 지금의 시대까지  
기도의 제단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너희가 드린 기도의 제단은  
내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하고 귀한 것이니라.

그러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드리듯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사랑과 생명이니라.  
구약의 제단과 같이 가장 높고도 높은  
자기 마음의 성소의 발판 위에  
자기 가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사랑의 나무를 불태우고  
소 잡고 양을 잡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인생의 제물, 청춘의 제물을  
내 앞에 바치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인생의 단, 청춘의 단이라도  
내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엘리야기도를 했던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들과 나를 사이에 두고  
제단 앞에서 자기 생명 걸어놓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반드시 이기기라 하는  
기도하였다.  
다니엘도 사자 굴에 던져질지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였고  
내 사랑 예수도 자기 목숨을 내어 놓고  
두렵고 떨려도 내 뜻을 앞에 두고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목숨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네 마음과 인생 정도는 나에게 달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무리한 부탁이더냐.  
이것이 너희에게 과도하게 행하는 것이더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시대 너희를 진정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고자  
너희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재림 역사의 환란 앞에,  
구원의 유무가 좌지우지되는 선악의 싸움 속에  
나는 너희 생명을 두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노라.  
환란의 날, 재림의 날,  
선과 악이 판가름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여 그 날에 나와 내 사랑 예수를 맞이하라.  
그 날은 진정 기쁘고 기쁜 날인데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여도 그 행실이 이 전과 동일하여 변화하지 못하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네 마음의 제단, 사랑의 제단 위에  
너희 생명과 너희 영혼을 제물로 올려두고 기도하라.  
이 시대 내가 구원할 자 두고 기도하여라.  
그 기도로 내 사랑들을 시대 악한 자들이 삼키울지  
아니면 그 제단에 사랑의 불이 붙어 회개하여  
시대 악을 멸하고  
자기 생명, 자기의 목숨이 살아날 것인지 판가름될  
것이다.  
이 시대 엘리야기도는  
시대 악을 멸하며 동시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절대 절명의 기도이다.  
자기 생명도 구하고  
내가 구원할 다른 많은 생명들까지 구하는  
극적이고 극적인 기도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도 살고

네 민족과 이 시대가 살고자 하면 기도하라.  
나 여호와와 불이 너희 인생의 제단에 임하여  
악을 멸할 것이니  
굳은 믿음으로 사탄 마귀 때려잡는  
속 시원한 기도하여라.

너희의 기도의 제단에 흠이 없는 너의 사랑 올려놓고  
간절하고 간절하게, 깊고 깊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기도의 제단에  
네 생명과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 올려놓고  
악을 멸하는 기도하여  
이 시대 가장 정결하고 온전한  
인생의 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이처럼 무엇이든지 사랑의 제단,  
생명의 제단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임이라.  
시대 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이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의 기도, 절대 믿음의 기도,  
선악 구분의 기도, 찬양으로 하는 기도, 삶 속 대화의  
기도,  
이기는 기도, 사랑의 기도, 생명의 기도, 극적인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희 인생의 산 제사이니라.  
이 시대 기도의 용사되어 악을 이기며  
네 사랑이 충만하여 사탄 마귀 범접치 못하도록 하자.  
알겠느냐.  
너희는 내 사랑에 충만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내 사랑으로 생명의 결실 충만하고 충만하도록  
성령의 행실, 생명의 행실, 신부의 행실이 충만하라.

기도는 인생의 십일조니라.  
하루 24시간 중, 새벽 제단 2시간 24분 십일조이다.  
적어도 하루의 십일조 시간은 나에게 주어라.  
시간의 십일조.  
새벽 제단은 나의 것이니 속히 지켜 행하라.  
시간의 십일조.  
내게 주는 시간, 나의 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신앙을 맞는 기름 준비한 자 되어라.  
깨어 기도하여 도적같이 임하는 인자를 맞이하라.  
그러니 새벽이 중하고 중하다.  
나에게 네 사랑을 주는 시간이고  
또 네가 나에게 사랑받는 시간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듯이

나도 그러하니라.  
사랑하고 사랑한다. 안녕.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